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이어 유동화증권 전액 책임질 것”

“희생절차에 채권상환 일시 유예 정해진 일정 따라 회수 못해 사과 증권사 협력 전액변제 목표 협의”

노조 “사재출연, 근본적 책임회피 여론압박 피할 임시방편” 지적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 출연을 선언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상거래채권 변제 시기를 앞당기고, 유동화증권 전액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세업자 채권 지급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급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입채무유동화와 관련해서는 “자산 유동화단기채권(ABSTB)을 포함,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당사의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해당 채권의 변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사에 있다”며 “관련 증권사들과 협력해 희생 절차를 따라 전액 변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내부 모습. /뉴스1

그러면서 “더불어 희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매입채무유동화를 포함한 채권 상황이 일시 유예됨에 따라 정해진 일정 따라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린다”며 “죄송한 마음을 바탕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각 채권자들과 가능한 변제 방안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 변제 시기를 앞당기고 유동화증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은, 홈플러스 지분 100%

를 소유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6일 “홈플러스 희생 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재 출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밝히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측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는 근본적

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여론과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가 악화되고 국회의 출석 요구, 국제청 세무조사, 노조의 반발 등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사재 출연이라는 임시 대응을 내놓은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일시적 사재 출연이 아니라,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기업 희생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홈플러스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MBK가 홈플러스 기업희생 절차라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다른 기업 인수(M&A) 행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시 모든 기업 M&A 행위를 중단하고 홈플러스 정상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 측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과 관련해 “현재 소상공인 채권 지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산 중”이라고 답했다.

연이은 의혹에 논란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당 이인영 의원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관련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ABSTB 규모는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 사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영증권이 발행한 전체 ABSTB 물량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ABSTB 발행액이 360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의혹이 계속되는 만큼 사재 출연만으로는 채권자들의 불안을 쉽게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사재를 언제 어느 규모만큼 출연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고, 희생절차 개시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계속해서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기준 상거래채권 지급액은 총 3400억원이었으며, 같은 날 오후 약 110억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총 지급 완료 금액은 3510억원이 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컬리, 활력충전 ‘몸을 깨우는 식사법’ 기획전

600여개 상품 최대 30% 할인
활력·입맛·나른함 깨우기 구분
나물밥·감자탕·파스타 등 준비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이달 20일까지 ‘몸을 깨우는 식사법’ 기획전을 진행한다

컬리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을 통해 활력 충전에 도움이 되는 상품 600여개를 최대 30% 할인해 선보인다. 따뜻한 국물부터 매콤한 요리, 제철 식재료 만든 간편식, 건강식 등이 준비됐다. 각각의 상품들은 ‘활력 깨우기’와 ‘입맛 깨우기’, ‘나른함 깨우기’ 등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편의성을 더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가장 먼저, ‘활력 깨우기’ 카테고리에



‘몸을 깨우는 식사법’ 기획전 포스터. /컬리

는 ▲백년가게 운채 향긋한 모듬나물밥 ▲구씨반가 송이버섯 들깨탕 ▲그리팅 성산포바당 제주 고사리 육개장 등이 포함됐다.

‘입맛 깨우기’ 카테고리에서는 매콤한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안원당 우거지 감자탕 ▲중앙닭강정 닭강정 3종

▲모노키친 빨간 어묵볶이 등 매콤한 한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서촌 영화루 고추잠뽕 ▲리틀 후쿠오카 매운 돈코츠 라멘 ▲금통각 마라탕 등도 준비됐다.

‘나른함 깨우기’ 카테고리에서는 간편식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어반다이닝 바지락 스팀 파스타 ▲미식 회관 바로바로 호롱낙지 ▲마더푸드 오리지널 쪽갈비 등이 있다.

컬리 관계자는 “명량한 봄을 맞이해 활력 충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과 간편식, 간식 등을 엄선했다”며 “컬리가 준비한 이번 기획전이 그간 움츠렸던 몸을 깨워 입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GS25, 31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접수,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검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발표되며, 이후 입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발된 신입사원은 ▲가맹 및 직영점

운영 컨설팅 ▲본부 전략 전달 ▲점포 양수도 및 재계약 관리 ▲손익 및 비용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GS25는 이번 채용에서 일반 전형, 캠퍼스 리크루팅, 전역장교 전형 외에도 ‘스펙초월 전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학력, 어학 점수 등 기존의 정량적 스펙을 배제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안재선 기자

SSG닷컴, 봄옷·잡화류 ‘패션명품 썬세일’

SSG닷컴이 이달 23일까지 일주일간 봄옷과 잡화류를 중심으로 올해 첫 ‘패션명품 썬세일’을 진행한다

SSG닷컴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봄 신상 의류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특히, SSG닷컴 입점을 기념해 브룩스브라더스와 리우리우는 추가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헬렌카민스키 신상품 모자를 선문칭하는 행사도 열린다.

지난 시즌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재고 정리 세일도 진행한다. 슈즈미스, 시슬리, 아무르 무아르, 에피그램 등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안재선 기자

美 행동주의 펀드, 한국콜마 ‘경영참여’ 천명

이달 말 정기주총 임원 선임 요구

최근 국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가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경영참여’를 천명하며 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임원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지주회사 콜마홀딩스가 오는 31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사 선임 안건에는 임성운 달튼코리아 공동대표가 신규 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임성운대표는 시카고대 경영학석사(MBA) 출신으로 현재 달튼인베스트에서 파트너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시니어 애널리스트 업무를 맡고 있다. 임성운대표가 콜마홀딩스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달튼인베스트는 지난 14일에는 콜마홀딩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여목적’으로 변경했다. 또 주식을 추가 매입해 달튼인베스트가 보유한 지분율은 5.02%에서 5.69%로 커졌다.

이와 관련 달튼 측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

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달튼코리아의 주주제안으로 이사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며 “이사 신규 선임시 이사회 내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 및 특별관계인 지분은 48.45%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 주주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으로 31.75%를 보유하고 있다.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사장은 7.45%, 유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5.59% 순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CJ제일제당-컬리, 현미곤약 주먹밥 출시

전주비빔·김치베이컨 등 3종

CJ제일제당이 컬리와 공동으로 기획한 신제품 ‘제일맛게컬리 현미곤약 주먹밥’ 3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CJ제일제당과 컬리의 협업 프로젝트인 ‘제일맛게컬리’를 통해 선보이는 다섯 번째 제품이다.

‘제일맛게컬리 현미곤약 주먹밥’ 3

종은 ‘전주비빔’, ‘닭가슴살 블랙페퍼’, ‘김치베이컨’으로, CJ제일제당만의 기술력을 통해 현미의 거친 식감과 곤약 특유의 미끌거림을 개선하고 고슬고슬한 밥알의 식감을 극대화했다. 주먹밥 1개당 155~165Kcal로 부담 없이 건강한 한 끼 식사로 활용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